

중간고사 시험지도 전과목 통째로 유출

“학운위원장에 줬다”... 경찰, 광주 사립고 행정실장 진술 확보

기말고사 5과목 아닌 전과목
금품거래·추가 연루 의혹 여전
허술한 시험관리에 불신 확산

학교 행정실장·학부모가 공모해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광주 한 사립고교에서 중간고사 전과목 시험지까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3학년 아들을 둔 의사 학교은 영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학교 행정실장 소행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6면>

대가성·1회성·윗선 등 제 3자 개입 여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된 3대 의혹(광주일보 2018년 7월 16일자 6면) 가운데 하나가 밝혀진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나머지 2가지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찰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 주서부경찰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혐의를 인정한 사립고 행정실장 A(57)씨로부터 “3학년 중간고사 시험지도 외부로 유출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경찰은 중간고사 시험지 역시 기말고사 시험지를 건네받은 학운위원장 B(여·51)씨에게 일부 과목이 아닌 전과목이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도 이날 시교육청 브리핑에서 “중간고사 시험지 외부유출 역시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당초 이들의 진술과 달리 A씨가 B씨에게 건넨 기말고사 시험지 역시 5과목이 아닌 전체 9개 과목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에 나서 학교 행정실 복사에 남아

있는 일부 흔적을 추적,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 내부 CCTV에도 행정실장 A씨가 지난 2일 등사실에 있던 시험지 원안들을 몽치째 들고 나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행정실로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험지는 교사가 출제할 원본으로, 이를 인쇄한 시험지가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경찰 수사로 ‘시험지 유출 3대 의혹’ 가운데 이른바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주목된다. 현재 경찰은 시험지 유출에 따른 대가 지급, 내부 추가 개입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입 수시전형을 한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고교에서 1학기 시험이 통째로 부정으로 치러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학교 학생뿐 아니라 광주 전체 학생과 교단은 대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해당 학교 측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말고사 전과목 유출 정황이 의심되므로, 5과목이 아닌 전체 9과목을 대상으로 오는 19~20일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간고사 부정까지 확인된 만큼 여름방학 전 서둘러 재시험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

허술한 고사관리 탓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험지 유출이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광주의 고교 내신정책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불신, 학교와 학부모, 학생과 불신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편 학교 측으로부터 아들 자퇴 권고를 받은 학운위원장측은 아들을 자퇴시키겠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밝혔다.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은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부 학생들이 “시험문제 유출이 의심된다”며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기숙사 친구가 시험 전 보던 유인물을 자랑삼아 일부 보여줬는데 시험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다. 이상하다”며 해당 유인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학교 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프랑스 20년만에 월드컵 우승 프랑스 선수들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4-2로 물리친 후 우승컵을 높이 들어올리고 있다. 프랑스는 1998년 대회 우승 이후 20년 만에 정상에 탈환했다. /연합뉴스

5·18 때 도청앞 집단발포 ‘11공수’ 광주 투입 계획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라지역에 11공수·26사단 편성
5월단체 “5·18 진상규명·단죄 안 돼 촛불시민 당했을 수도”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11공수여단 부대원들은 광주 시민들을 향해 일제히 M-16 소총을 발사했다. 금남로에 있던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총에 맞아 다치고 숨졌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때의 참상은 잊혀지지 않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가 지난 2017년 촛불 정국 때 광주·전남지역에 또다시 11공수여단을 투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논란이 되고 있다. 5월단체들은 지지부진한 5·18 진상규명이 결국 또다시 5·18을 불러 올 수도 있었다며 철

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담긴 ‘계엄임무수행군 편성(안)’을 살펴보면 전라지역에는 11공수여단, 26기계화사단이 편성돼 있다. 이 문건은 A4 용지 13장 분량으로, 지난 6일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을 비롯한 전라·경기·강원·충청·경상 등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공수여단, 기계화사단(기갑여단)이 동시에 투입된다.

지역 5·18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38년 전 5월 상황과 판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광주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수여단으로 시위대의 기선을 꺾을 뒀던 배치된 기계화사단의 탱크 등을 동원해 광주를 점령하려 했다는 것이다.

현재 11공수여단은 담양군 무정면, 26사단은 경기도 양주군에 주둔하고 있었다. 병력 규모는 11공수여단 1500여명, 26사단 1만여명으로 알려졌다. 11여단은 광주 5·18민주광장까지 차량으로 불과 1시간 30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5·18 당시에도 광주와 인접한 전북 정읍시 금마면 주둔 7공수여단이 출발 3시간 만에 광주에 도착했으며, 11공수여단(강원도화천)·3공수여단(서울), 20사단

(경기도 양평)이 차례로 투입됐다. 1980년 5월27일 공수여단이 옛 전남도청, 광주공원 등을 제압한 뒤 20사단이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광주 시내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5·18 직전 열렸던 3일간의 민족민주화 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은 10만여명,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은 50여만명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의 규명과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도 또다시 국민의 군대가 국민을 적으로 여겼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5·18 진상규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문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관련 軍 오간 문건 즉시 제출하라”

군통수권자로서 확인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국방부·기무사·육군참모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 광주 전시장 (062)224-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소문동) |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동7단), 복합회합용도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